

‘콘텐츠’로 승부한다...1월 드라마 기대작 어떤 작품?

새해를 맞아 방송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KBS, MBC 양 방송사의 파업으로 주춤했던 방송가의 분위기를 일단락짓고 2018년 다양한 장르와 소재로 포진한 드라마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화제작을 다수 내놓은 케이블채널 tvN,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지상파에 버금가는 케이블과 종편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만큼 올해도 채널 인지도보다는 ‘콘텐츠’로 승부하겠다는 제작자와 배우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월 시청자들을 새롭게 찾아오는 안방극장 드라마의 면면을 살펴봤다.

◆ tvN ‘크로스’ 메디컬 드라마의 새 장 열까

tvN은 연초부터 의학드라마로 승부수를 띄운다. 29일 첫방송하는 ‘크로스’(신용희 연출/최민석 극본/스튜디오드래곤, 로고스필름 제작)는 독특한 상황 설정이 눈길을 끄는 의학 드라마. 병원과 교도소를 넘나들며 복수심을 키우는 천재 의사 강인규(고경표)와 그의 분노까지 품은 휴머니즘 의사 고정훈(조재현)이 만나며 서로의 삶을 송두리째 뒤엎는 예측불허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공개된 1차 티저 영상은 짧지만 강한 임팩트를 시선을 잡아끈다. 인간적인 옹기 따위 전혀 느껴지지 않은 교도소의 폐마를 종파와 무거운 혼합 뒤 어딘가를 응시하는 간절한 표정의 고경표 모습이 극적인 대비

올해도 케이블채널·종합편성채널 등 크로스·미스터리·애간장 등 방송 예정

를 이루며 스타일감과 긴박함을 동시에 전하고 있다. 조재현이 휴머니즘을 간직한 의사로, 고경표가 그와 대척점에 서 있는 복수심 불타는 의사로 분해 열연을 펼친다. 극 중 조재현은 냉철함을 지닌 신립병원 장기이식센터장 고정훈으로 분한다.

그는 간이식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로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세계 최초·세계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는 인물. 감직한 성품과 실력, 매너까지 갖춘 의사다. 그런 가운데 어릴 적 인연과 함께 가슴 가득 들어찬 원망과 분노로 병원과 교도소를 폭주하는 고경표를 온 몸으로 품으며 애증으로 엮인 그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운다. 브라운관을 압도하는 관록의 연기를 펼쳤던 그가 6년만에 선보이는 메디컬 드라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JTBC ‘미스터리’ 김남주 복귀작+미스터리 멜로로 ‘관심’

지난해 ‘품위있는 그녀’로 드라마계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른 JTBC는 1월 미스터리 멜로극으로 야심찬 도전을 펼친다. 26일 방송하는 금토 드라마 미스터리(극본 제인, 연출 모완일, 제작 글앤그림)가 바로 그

작품 ‘미스터리’는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 고혜린(김남주)과 그녀의 변호인이 된 남편 강태욱(지진희) 등 두 남녀를 중심으로 그들이 밟았던 사랑의 민낯을 보여주는 격정 미스터리 멜로다.

김남주와 지진희는 특급 만남만으로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작품이다. 안내상은 헤란이 용의자로 지목된 살인사건을 파헤친다. 6년 만의 복귀로 화제를 모은 김남주는 5년 연속 ‘올해의 언론인상’을 독식하는 최고의 앵커 고혜린 역할을 맡았다. 김남주는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고 열의를 보이며, 촬영에 매진중이다.

이밖에도 어느 작품에서나 묵직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이경영, 김보연, 연운경, 이아현, 이준혁, 김수진 등이 총출동한다. 특히 이 작품은 탄탄하고 흥미진진한 대본으로 기획 단계부터 화제가 됐다. ‘드라마 스페셜-시리우스’ ‘뉴티플 마인드’를 연출한 모완일 PD의 JTBC 첫 작품으로 제인 작가가 집필을 맡았으며 강은경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한다.

◆ OCN ‘애간장’ 주축했던 멜로 드라마 불세 살릴까



OCN은 1월 멜로 드라마로 출사표를 던졌다. 최근 이렇다할 멜로 드라마가 없는 방송가에 새로움을 선사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지점. 8일 첫방송하는세 월화드라마 ‘애간장’(박기연 극본, 민연홍 연출)은 어릴 적 그 시절 첫사랑과의 과거를 바꾸고픈 주인공이 10년 전의 ‘나’를 만

나 ‘첫사랑 원상복구’에 나서는 이야기다. 씨엔블루 이정신과 배우 이영음, 서지훈이 주연을 맡아 뜻뜻한 첫사랑의 기억을 찾아나선다. 극중 이정신은 한 사람에게만 가슴이 뛰는 88세 모태 솔로 강신우를 연기한다. 강신우는 10년 전의 자신과 첫사랑의

담임 교사가 되어 둘을 이어주려고 군분투한다. 최근 공개된 포스터에서는 각각의 캐릭터 특징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포스터 속 너에게 인생을 두 번 걸었다라는 메인 카피는 첫사랑으로 얽힌 세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음원차트, 역주행의 순간들



해 발표한 곡 ‘홀니’로 여름 음원차트를 장악했다. 윤종신의 데뷔 이후 음원차트에서 처음으로 1위를 만들어준 곡이다. 발표 한 달 반 만에 이뤄낸 역주행 1위는 윤종신의 음악이 갖는 저력을 입증했다. 윤종신에 이어 멜로망스도 ‘선물’이란 곡으로 역주행 열풍의 주인공이 됐다.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출연 이후 SNS에서 화제를 모으면서 음원차트 역주행과 흥판을 이끌었던 것. ‘홀니’와 ‘선물’은 올해의 역주행곡으로 꼽힐 정도로 음악 팬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었다. ‘좋은 음악들은 언젠간 빛을 본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프로모션보다 음악의 가치를 보여주는 역주행 사례였다.

가장 슬픈 1위

지난해 가장 슬픈 1위의 주인공은 그룹 사이니 멤버인 고종현이다. 지난달 18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후, 팬들은 고종현의 음악으로 그를 추모했다. 비보가 전해진 이후 고종현의 솔로곡인 ‘론리(Lonely)’와 ‘하루의 끝이’ 음원차트에 제진입했고, 며칠 동안 1위를 유지했다. 여전히 차트 상위권에 올라 있는 상황. 가장 슬픈 역주행이었다.

좋은 음악의 힘

역주행을 완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좋은 음악의 힘’이다. 지난해 윤종신과 멜로망스가 좋은 음악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다. 윤종신은 미스틱의 리스프로젝트를 통

앞서 지난 2014년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 은비와 리세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당시에도 팬들은 음악으로 멤버들을 추모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후, 레이디스코드가 2013년 발표한 곡 ‘아이 엠 핏팅 유(I'm fine thank you)’가 음원차트 1위에 오른 것. 고 은비의 생전 소원이 음원차트 1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스트리밍과 다운로드에 나선 바 있다. 음악을 사랑했던 뮤지션들을 떠나보내는 팬들의 마음이 담긴 역주행이었다.

직캠과 아이돌픽

역주행 열풍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EXID는 과거 멤버 하나의 ‘직캠’ 영상으로 반전을 맞은 팀이다. 행사장에서 찍힌 ‘위아래’의 직캠이 화제를 모으면서 방송 활동을 끝냈던 EXID를 소환했고, 음악방송 1위까지 만들어냈다.

지난해 마지막 역주행의 주인공으로 꼽히는 가수 문문의 비행은은 ‘아이돌픽’으로 꼽힌다. 물론 좋은 음악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었다. 문문은 앞서 가수 아이유와 방탄소년단 정국이가 언급해 화제를 모은 뮤지션. 최근 비행은이 음원차트 1위로 등장,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아이유와 정국의 언급으로 이름을 알렸고, 좋은 음악의 힘으로 다시 역주행을 이끌어낸 문문이다.

‘코빅’, 확 달라진다...“시의성+트렌드 반영한 코너 개편”



‘코미디빅리그’가 새해를 맞아 신년 포스터를 공개했다. 2일 공개된 ‘코빅’의 신년 포스터에는 ‘대세로 굴다’는 카피 아래

로 대세 코미디언 11명의 얼굴이 조각감처럼 새겨져 있다. 이는 미국 러시모어산에 새겨진 미국 대통령 조각상인 일명 ‘큰바위 얼굴’을 연상케 한다.

‘코빅’이 배출한 코미디언 박나래, 양세형, 장도연, 이국주, 양세찬, 이상준, 이진호, 이용진, 황제성, 문세윤, 홍윤화는 이번 포스터 촬영을 통해 2018년 ‘코빅’을 대세 프로그램으로 굳히겠다는 의지와 함께 자신들 역시 ‘코빅’의 큰 재미를 수호하는 대세 코미디언으로 굳히기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해당 포스터는 코미디언들의 표정이 유쾌하게 움직이는 무빙 포스터 형태로 제작돼 2일부터 2주간

용산 CGV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오는 7일 첫 방송될 2018년 1쿼터 1라운드 방송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코빅’은 ‘대세로 굴다’는 새해 결심을 다진 만큼 2018년에는 대대적인 코너 개편을 통해 더 폭넓은 시청층과 공감하겠다는 포부다. ‘코빅’의 메인 연출을 담당하게 된 김민경PD는 “2018년에는 가족단위로 시청할 수 있는 코너를 대폭 늘리고 시의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코너를 통해 더욱 친근하고 신선한 웃음을 선보이려고 한다. 2018년 새로워진 코빅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웃음의 대세 ‘코빅’은 오는 7일 오후 7시40분에 2018년 1쿼터 1라운드로 시청자를 찾아간다.

박효신 ‘겨울소리’, 8개 차트 ‘올킬’

음원 강자 박효신이 새해 첫 음원차트 올킬을 기록했다. 박효신은 지난 1일 0시에 싱글 ‘겨울소리’를 공개 후 2일 오전 10시 기준 멜론, 지니, 엠넷, 박스네이버뮤직, 윌레뮤직, 소피바다, 몽키3뮤직 등 총 8개 음원차트 1위를 기록하며 2018년 첫 곡에 이

어 첫 번째 음원차트 1위 올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박효신의 ‘겨울소리’는 0시 음원 공개로 음원차트 성적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 음원차트 정상을 굳건히 지키며, 박효신의 음원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겨울소리’는 박효신의 자작곡으로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사운드와 탄탄한 보컬을 통해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곡이다. 박효신과 김이나의 작사가 추운 겨울임에도 포근한 겨울밤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에 오케스트라와 40인 합창단의 풍성한 사운드가 더해져 영화와 같은 기승전결까지 느껴지는 명곡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오늘의 순세 2018년 1월 3일 수요일 (음력 11월 16일)

<p>▶쥐 내일을 위해 덕을 쌓고 남을 존중해주는 미덕의 자제가 요구된다. 작은 일로 상대를 무시하다 언제 어디서 도움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닌가. 믿음이 모든 불화를 물리칠 수 있는 법. 가장 화목을 제일로 생각하라.</p>	<p>▶돼지 1, 4, 9월생 느린 것이 단점이나 항상 착하니 실수 없이 따듯한 보람을 맛보게 될 수. 자식 신병으로 마음고생이 심하니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는 격. 당신 건강도 유의하고 두통약도 준비하라.</p>	<p>▶원숭이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는 습관을 버리고 기본 나는 대로 일을 처리하지 말 것. 때에 따라서는 신념을 굽힐 줄 알아야 한다. 과욕은 실패의 원인임을 알라. 흰색이나 회색 옷으로 새로운 다짐이 필요한 시기.</p>
<p>▶사슴 일에도 순서가 있는 법. 결단력이 없어 잘돼 가는 일에 망설이고 있구나. 오늘은 등산이라도 가 용기를 얻고, 내일 일에 착수하라. 생각보다 진행이 빠를 것이다. 그, 사, 흥 성씨가 더욱 길함.</p>	<p>▶닭 애꿎은 사람을 소중하게 다스리며 겸손한 태도가 요구된다. 진행하는 일 모두 손조롭게 이뤄진다. 그러나 어제의 약속을 늦추면 사업에는 불길할 듯. 남, 서쪽에 황재수가 있으니 기회를 잡으라. 소화 장애 조심.</p>	<p>▶말 밝은 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새 희망과 희망찬 미래가 보이니 남을 도와도 알아주지 않는다 서운해하지 말라. 머지않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애정은 사랑하는 사람과는 배필이 못 되고 돼지, 범, 원숭이띠가 인연이 될 듯.</p>
<p>▶호랑이 자기주장은 손실 원인이 되니 상대 의견에 귀 기울여 묵은 것은 과감히 처리하고 새로운 계획으로 이끌어 감이 좋을 듯. 금전은 혼자 관리보다 여자에게 맡길 때 하나의 실수도 없이 상고에 향한다. 서로 믿는 마음이야말로 천정배필이 아닌가.</p>	<p>▶물고기 지나친 감정 표출은 상대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으니 표정 짓기 연극이 필요하다. 새로운 일이 시작하니 마음 역시 밝게 갖고 준비할 때다. 경거망동을 삼가고 하던 투자는 그대로 하라. 더 큰 것을 욕심내면 후회하게 될 듯.</p>	<p>▶개 어떠한 요행을 바라는 것보다는 현재 하는 일에 매진하라. 1, 4, 9월생은 무모한 생각과 행동은 삼가고 일이 아니면 가지 말라. 옳은 주관은 망설임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진가를 발휘한다.</p>
<p>▶토끼 뜬구름은 아무도 잡을 수 없는 법. 상대방 자존심도 생각하고 연인과의 고우존중이도 중단하라. 분수를 모르고 경거망동하다 배필을 놓친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처신함이 좋을 듯. 사랑보다 돈이 중요하지 다시 한번 생각할 때다.</p>	<p>▶양 세상사 모든 일 뜻한 대로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지나친 감정 표현을 억제하고 실속을 차려야 할 때다. 과욕에 주의하고 주위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갖는 것이 좋을 듯. 그, 사, 흥 성씨 현재 힘든 상황일지라도 자식에게 관심을 쏟고 관찰하라.</p>	<p>▶돼지 지금까지 잘 참아왔다. 서두르지 말고 세심하게 대처하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하지 않았는가. 자신의 답답함을 버, 오, 흥 성씨에게 말하며 풀어버림이 좋겠다.</p>